

2013학년도 2학기 CSU 수학보고서

<장윤정, 김호진, 신민정, 박희성, 김소정>

1. 출국 전 준비사항 - 장윤정

- 1) CSU 합격 후 준비사항
- 2) 비행기 티켓
- 3) DS2019
- 4) 비자발급
- 5) 짐싸기
- 6) 각종 카드 발급
- 7) 핸드폰

2. 수강신청 - 신민정

- 1) 수강신청
- 2) 수강정정
- 3) 수강과목

3. Housing - 김소정

- 1) 기숙사
 - Community style
 - suite style
 - 기숙사 신청방법
 - 기숙사 변경신청
 - Meal plan
- 2) Out-campus

4. 교내시설 - 김호진

- 1) 도서관
- 2) USU (University Student Union)
- 3) 교내 서점 (Kennel Bookstore)
- 4) 비즈니스 건물 (Peter's Business building, PB)
- 5) Student Recreation Center

5. 결론 - 박희성

1. 출국 전 준비사항

1) CSU 합격 후 준비사항

CSU 합격 후 Crystal에게서 각종 메일이 올 것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등록, 기숙사 신청, 보험, 수강신청 방법 등에 관련된 메일이 올 것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메일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울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팀원들과 같이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비행기 티켓

합격하고 나서 수시로 비행기 티켓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구입 시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키세스 여행사에서 티켓을 샀습니다. 인천-일본(나리타)-LA-Fresno 행으로 끊었습니다. 이 여행사는 국제학생증을 발급하는 일도 같이 하는데, 국제학생증을 발급 받으시면, 기차나 각종 공연에서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발급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DS2019 ★

DS2019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을 때, 입국심사를 받을 때 등 필요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국 시에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4) 비자발급

비자 발급 절차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국제처에서 비자설명회가 열리면 상대학생들에게도 연락이 올 것입니다. 참석하셔서 설명을 들으시거나, 네이버 블로그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하시면 될 것입니다. 비자인터뷰를 신청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비자 인터뷰 시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인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인터뷰 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쇄심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들어갈 때 맡겨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교환학생 비자 인터뷰 질문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끝나면 1~2틀 뒤에 집으로 여권이 배달될 것입니다.

5) 짐싸기

저희는 8월 15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땐 프레즈노에서 가장 더울 때입니다. 정말 햇빛이 강합니다. 그러나, 습하지 않기 때문에, 땀이 전혀 안납니다. 선크림은 정말 필수입니다. 8월엔 정말 햇빛이 강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은 아침에 좀 쌀쌀하고 햇빛도 좀 약해졌습니다. 비는 정말 안 옵니다. 캘리포니아 날씨는 1년 내내 우리나라의 여름, 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여기 오셔도 많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여름, 가을 옷을 가져오시면 될 것입니다.

필수로 가져오셔야 될 것은 110V 돼지코입니다. 여기는 110V를 쓰기 때문에, 돼지코를 많이 사오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2개에 1300원 정도로 굉장히 싸입니다.

렌즈나 안경 같은 경우 여기서 사실 때 한국의 몇 배가 들기 때문에, 많이 챙겨서 오시거나, 중간 중간 한국에서 택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키엘, 크리닉, 베네피트, 맥 등의 브랜드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가 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대 오리엔테이션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기숙사 오픈일 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땐, 기숙사 식당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며칠 먹을 햇반이나 컵라면 정도는 챙겨오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기숙사 오픈 일 보다 2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2틀치 방값으로 38달러 정도 냈습니다. 또한, 바로 도착하고 씻을 수 있는 여행용 세면도구도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것들은 근처 월마트에서 다 팔고, 근처에 한인마트도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6) 각종 카드 발급

여기서 오기 전에 씨티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올 땐 씨티은행이 수수료가 가장 싼 걸로 기억합니다. 학교 정문 앞 세븐일레븐에 씨티은행 ATM기가 있기 때문에, 현금카드를 만들어 오시면, 돈을 수시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족카드를 만들어왔는데, 각종 인터넷 결제 시 유용합니다.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학생명의로 하나 더 발급한 것인데, 하나 정도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제학생증은 학생증 기능만 하는 것과 체크카드 기능까지 하는 것 2가지로 나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생증 기능만 하는 것으로 발급했지만, 각자 알아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핸드폰

자신의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시려는 분은 일단 유심칩(\$15) 구매하셔야 되고, 그 다음 요금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5명 중 3명은 이 사이트에서 티모바일로 미리 결제 해서 왔습니다.

<http://www.koreatmobile.com/> 여기 말고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통신사엔 티모바일, at&t, 등이 있습니다.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2명은 미국에 직접와서 결제를 했습니다. 학교 근처 패션페어에 가서 티모바일 유심칩을 사고, 미국본사 티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미국본사 티모바일 홈페이지와 한국의 대리 업체와 요금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잘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2. 수강신청

1) 수강신청

파견학생으로 선발되고 나면 CSU의 IBP(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 Program Coordinator인 Chrystal Cui로부터 메일이 옵니다. 메일에 수강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수강신청 하는 방법과 함께 수강신청 웹사이트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말씀 드리자면, class schedule에서 듣고 싶은 과목을 정하고 International Scholar Portal에 그 과목들은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Chrystal Cui로부터 확인 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 후 다시 acceptance letter가 오면 수강신청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사이트에서 course subject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과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ECON(economy)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하여 ECON 40, ECON 50등의 과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같은 과목이라도 시간과 교수님에 따라 수업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수업은 오전 8시가 가장 빠른 수업이며 수업은 화, 목 75분씩 또는 월, 수, 금 50분씩 또는 주 당 1번에 150분씩 진행됩니다.

저희는 12학점 수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12학점 이상을 수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extra tuition 을 지불해야 합니다. Extra tuition는 학점당 \$200인데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면서까지 꼭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12학점 듣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공 이외의 수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나 IBP에서는 비즈니스클래스 이외에 수업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공수업 이외에 수강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12학점을 다 신청하지 말고 그 과목학점만큼은 비워두셨다가 학기 시작 첫 주에 직접 교수님을 찾아가서 permission number and signature을 받으셔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permission number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 수강신청은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선발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발된 사람들끼리 같은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혼자 듣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첫 학기에는 같이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수업을 100%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똑같은 수업을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두 과목 정도는 혼자 듣는 수업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수강신청을 할 때 많이 고민하실 텐데요. 영남대 강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학생들이 교수님을 평가해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과목의 교수님 평을 읽어보고 수강신청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강신청 전에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보시길 추천합니다.

<http://www.ratemyprofessors.com/SelectSchool.jsp?country=0&stateselect=CA>

2) 수강정정

수강신청을 잘못해서 정정을 할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 수강신청을 할 때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그룹 발표가 많은 과목인지 등을 잘 알아본 뒤에 자신에게 맞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계나 수학 관련 수업은 그룹프로젝트가 잘 없는 반면 마케팅 관련 수업은 그룹프로젝트가 많은 편입니다. 수강신청을 한 뒤에 자신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수업이 너무 어렵다거나 따라 갈 수 없을 것 같아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학기가 시작하고 3주 이내로 수업을 바꿀 수 있는데, 바꾸고 싶다고 마음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바꾸려는 과목 교수님이 직접 교환학생 담당 사무실로 이 학생은 수업을 따라 갈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별도의 비용 없이 수업을 바꾸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도 바꾸고 싶다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00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수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수강과목

IBP 학생으로서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는데 그 중 9학점은 반드시 Business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는 현재 저희가 수강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ACCT 4A : 저희는 각자 다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강의 방식은 다르지만 과제는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정과목을 영어로 배운다는 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과제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BA 174 : 가장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한국 분이셔서 다른 과목에 비해 수업도 잘 들리고 내용도 쉬운 편이라서 처음에 듣기 무난한 과목입니다.

MKTG 150 :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마케팅보다는 사실 스포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ECON 178 : 국제통상학과라면 어렵게 느끼질 않을 과목입니다. 교수님이 한국 분이신데 BA174 교수님보다 한국 엑센트가 강합니다. 수업방식은 한국수업방식과 비슷하면서도 수업 중간에 그룹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도 나중에는 자기 의견도 말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CON 114 : 교수님이 멕시코이셔서 특유의 엑센트로 인해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흥미로운 주제라서 한 번은 들어볼만한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들보다 수업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S 71 :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차방정식, 근의 공식 등에 대해 배우는데 쉬운 편이나 문제 푸는 과제가 매주 있습니다.

MGT 104 : 매니저의 자질과 회사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토론수업이 있고 신문을 스크랩해서 수업과 관련한 에세이를 쓰는 것이 주 과제입니다.

MGT 127 : 이 수업은 영어로 자유토론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과목입니다.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좋은 과목이지만 약간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 Housing

1) 기숙사

기숙사는 크게 community style과 Suite style로 나뉩니다. Community 는 우리나라 기숙사형태와 가장 유사합니다. 영남대학교 기숙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방이 있고 각층에 사는 사람들과 샤워실과 화장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Suite는 아파트 형태로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의 스윗 메이트들과 거실과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1) Community style

Community 는Homan hall, Graves hall, Baker hall 로 나뉘집니다. 각자의 hall 에는 Quite Time 이 있는데,Homan hall 은 밤 9 시, Graves hall 은 밤 10 시, Baker hall 은 밤 11 시 이므로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기숙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mmunity 방은 Double room 과 Single room 두 종류로 나뉩니다. Double room 은 한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형태이고, Single room 은 독방입니다. 개인공간을 중요시한다면 Single room 이 적합하겠지만, 외국인 룸메이트와 같이 살면 영어를 쓸 기회도 많아지고 문화적 차이나 사고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으므로 Double room 을 추천합니다.

또한 Community 일층에는 큰 홀과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으며, 홀에는 DVD, Board game 등의 여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community에서는 Wi-fi 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세탁은 각 hall 의 1 층에 있는 세탁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탁은 1.25 달러, 건조는 1 달러로 Atrium 에 가서서 카드 구입 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2) Suite style

Suite 는 Sycamore, Sequoia, Aspen, Birch, Cedar, Ponderosa 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uite는 와이파이 대신 지급받은 유선랜을 사용하여 노트북을 사용하게 됩니다. suite에서 와이파이망을 이용하려면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인터넷전화기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community에서는 무선랜이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 suite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ite 의 경우는 개인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서 Quite Time 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Suite 의 방 형태는 Single room, double room, triple room 으로 나뉩니다. Suite 는 개별적으로 거실이 있기 때문에 Community 와 달리 홀과 주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Suite 는 각 층별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 가격은 Community 와 동일합니다.

① 기숙사 신청방법

Community style 과 Suite style 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본인에게 맞는 기숙사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http://www.universitycourtyard.org/application_option.html

접속, **Downloadable Application** 클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고,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서 메일에 첨부해서 보내도 됩니다.

기숙사 비용 지불방법은 One payment, Two payments, Monthly payments 세 종류가 있습니다. Two payments 를 하실 경우에는 1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Monthly payments 의 경우에는 30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② 기숙사 변경신청

개강 후 2 주 정도 지나면 Room change 와 Room swap 공지가 뜹니다.

Roomchange는 방 자체가 맘에 들지 않거나 룸메이트와 잘 맞지 않는 경우, 간단한 이유를 작성하고 선호하는 기숙사의 우선순위를 선택하면 방을 배정 받을 수 있는 것이고, Roomswap같은 경우는 다른 방과 자신의 방의 서로의 룸메이트끼리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 룸메의 동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정도의 신청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atrium에 양식을 제출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50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보통 Room swap 기간이 끝난 뒤 Room change 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50 달러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가됩니다. 보통 이미 익숙해진 상황에서 룸을 바꾸려는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roomchange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남은 방이 없다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오시기전에 룸메이트와 메일을 주고받거나 교감을 통해서 서로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기숙사에 직접 메일을 보내어 사전에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③ Meal plan

Meal plan 은 기숙사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Meal plan, 10Flex Plan, 14Meal Plan, 14Flex plan, 19Meal plan 5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는 일주일에 Dining Hall 을 이용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기숙사 다이닝 홀은 한국과 달리 뷔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lex 는 ID 카드 안에 125 달러가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7meal plan은 첫 학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한 학기 거주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10 Flex Plan : 일주일에 10번 다이닝을 이용하고 카드에 125\$가 충전됨.

카드에 충전된 돈으로는 학교 안의 구내 음식점과 도서관 안의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10Flex Plan 이지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Meal Plan 또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2 주 정도 선택한 Meal Plan 에 맞추어 먹다가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Dining Hall 지하에 있는 Front Desk 에 가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2. Off-campus

저는 새로운 경험을 위해 기숙사가 아닌 Palazzo라는 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만을 위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취에는 크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Palazzo라는 기숙사 형태의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하우스를 렌트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 Palazzo외에는 잘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먼저 단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밥입니다. 아무래도 점심이나 저녁을 밖에서 계속 사먹게 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 식당 같은 곳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5~7달러는 한끼 식사 비용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늘 학교에 있는 식당만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당을 간다면 10~12달러는 기본적으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저녁에는 집에서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알뜰하고 절약적인 삶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해결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보기입니다. 학교 주변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슈퍼는 세븐일레븐이 전부입니다. 즉, 한국에서 자취 할 때 처럼 조금씩 필요한 음식을 사오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1주일치 먹을 정도의 음식을 구입해서 오기 위해서는 차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보통 룸메들이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룸메들 장보러 갈 때 부탁해서 따라 갑니다. 근데 룸메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짜증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까지 거리와 안전입니다. 엄청나게 먼 곳은 아니나 걸어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 거리는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임당 공원을 지나 있는 S할인마트까지 거리 정도입니다. 주변에 있는 자취하는 친구들에게 물어 보거나 직접 걸어 보시면 어느 정도 인지 체감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걷는걸 좋아해서 걸어 다니지만 보통 자전거나 스케이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잘 훔쳐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 여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오기에는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에는 하우스 파티가 자주 열려 술에 취한 사람이나 마약을 하는 사람비교적 쉽게 볼 수 있어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자취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생각 할 수 있듯이 미국인들과 생활 하다 보니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들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해먹고 친구들을 불러서 놀고 가정 집처럼 생활 하다 진짜 미국 문화를 아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도 기숙사에 비해 저렴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방은 4명이 거실을 쉰어 하면서 사는데 한 달에 약 600달러 정도 지불합니다. 방 크기도 넓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 안에 수영장(스파도 같이 있음), 헬스장, 탁구장, 라켓볼 시설(스쿼시와 유사한 운동), 농구장 바비큐 시설이 있어 매우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한국 음식을 계속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off-campus였습니다.

<http://palazzofresno.com/>

4. 교내시설

1) 도서관

학교의 가장 중심에 위치한 건물로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시에 매일 개문(평일 오후 11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합니다.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책 대여, 노트북 대여, 서류 인쇄 이외에도, 한국의 일반적인 도서관과는 달리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2층에는 Starbucks가 위치해 있습니다.

2) USU (University Student Union)

도서관 이외에도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이며 도서관과 마주보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도 과제나 모임 등이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USU 내의 정보센터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 랜드, 풋볼 경기 티켓 등이 구매 가능 합니다. USU 지하와 맞은 편에는 교내 카페테리아(Subway, Panda Express 등)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내 카페테리아에서는 Meal plan을 통해 일정 금액이 충전된 학생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우체국, 미용실, 볼링장, 당구장 등이 USU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3) 교재 서점 (Kennel Bookstore)

USU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서점에서는 수업과 관련된 모든 교재와 문구류, 기타 서적, 교내 마스코트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교내 서점에서 판매되는 수업 교재는 다소 비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등의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Apple Store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4) 비즈니스 건물(Peter's Business building, PB)

상경대 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드나들게 되는 건물입니다. 영남대학교와 비교하자면 상경대학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전공 관련 수업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이곳에는 강의실과 강의 매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도서관과 USU 사이에서 보이는 분수 방향을 따라 5분에서 10분 간 걸게 되면 왼편에 위치하고 있는 흰색 건물입니다.

5) Student Recreation Center

교내의 대표적인 체육관으로서 PB에서 걸어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걸어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헬스 기구를 포함하여 농구장, 라켓볼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시간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댄스, 요가, 근력 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니 교내 홈페이지에서 시간표를 확인하여 참가하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들만 나열해놓아서 불충분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학교 시설이나 프로그램, 기타 질문이 있으시다면 cool1603@naver.com 으로 질문해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결론

결론 부분에서는 프레즈노 도착 후 개강 전까지의 생활과 전반적인 프레즈노 생활에 대해 적겠습니다.

저희는 8월 22일이 개강이었으나 16일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기 전에 저희는 15일에 도착하도록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하교 생활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해주는데 사실 엄청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월 마트나 주변을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강을 하기 전 기숙사 환영파티, KSA (Korean Student Association) 환영파티, ISP BBQ파티 등 생각 보다 잔잔한 파티나 모임이 많습니다. 사실 전 파티라고 해서 클럽음악이 나오고 술 마시는 파티를 생각 했으나 그냥 뷔페처럼 밥을 먹는 행사 정도 입니다. 그리고 바비큐 파티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이나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바비큐된 고기를 넣어 먹는 햄버거나 샌드위치를 나눠 먹는 정도 입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걸 추천합니다.

도착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준 이야기는 학교 주변의 안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진 후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조심하라는 조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을 경험 하지 못했으나, 이전 타 학교 교환학생의 사례가 있음으로 밤에는 혼자 다니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 명에서 뭉쳐서 이동하고, 교내 또는 큰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전의 수학 후기에도 적혀 있듯이 웬만한 물건은 미국 현지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식품도 패션 페어 근처에 있는 한인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먹을 정도의 음식 정도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멀지 않은 패션 페어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무리 하면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의 학생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 마크가 박힌 옷이나 물건을 쓰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내에 있는 bookstore에서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닐 수 있습니다.

프레즈노는 캘리포니아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 LA,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라스베이가스 같은 도시들을 비교적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4~6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이곳의 사람들은 그렇게 멀다고 느끼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 이곳은 다른 캘리포니아나 주변의 큰 도시로 여행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끔 있는 명절이나 공휴일을 이용하여 많은 곳을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이 곳에서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관광지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 큰 산불로 인해 많은 부분이 탔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프레즈노의 전반적인 평가는 좋습니다. 비록 조금한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놀거리가 있지는 않지만, 너무 뜨겁지만 습하지 않은 날씨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 체험은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내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입니다. 또 여기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면 많은 하우스 파티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